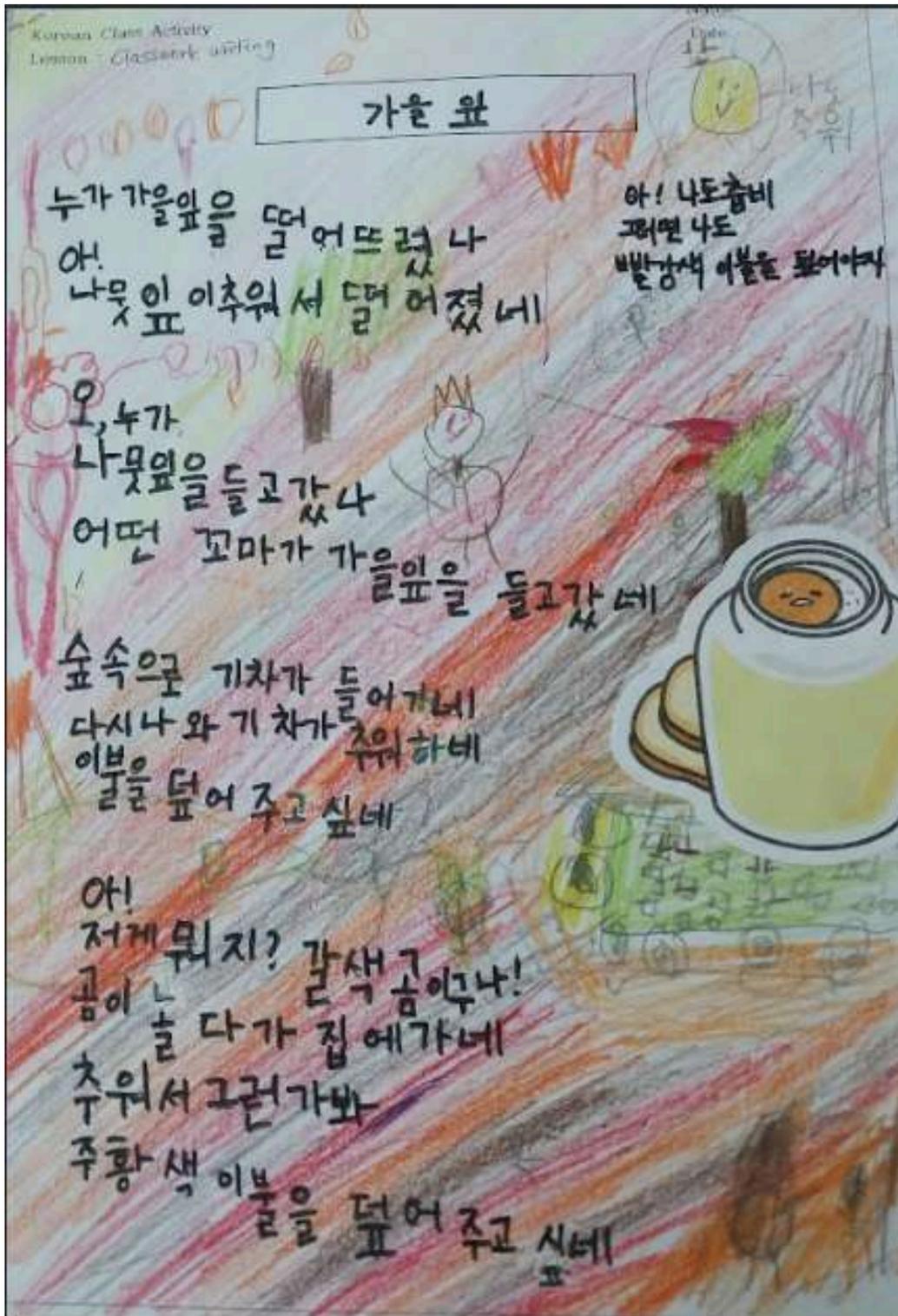


STUDENT CREATIVITY -KOREAN-



_가을_을 주제로 한 시 창작하기-
Lee Yoonje - 2 Teamwork



극, _토끼의 재판_의 이야기를 각색하기
Kim Sea - 3 Humility

‘극’의 형식에 맞추어 이야기 바꾸어 쓰기

(원작: 토끼의 재판)

[앞부분 이야기] 길을 가던 나그네가 사냥꾼이 궤짝 속에 가둬 둔 호랑이를 구해 준다. 그러나 배가 고프 호랑이는 나그네를 잡아먹으려 하고, 나그네는 소나무와 길에게 물어보지만 모두 호랑이가 옳다고 대답한다.

<고양이의 재판>

호랑이 : 이제 널 잡아먹겠다!

나그네 : (덜덜 떨며) 아니야, 아직 잡아먹지마. 아무 동물에게나 또 물어보자.
풀 숲에서 고양이가 나왔습니다.

나그네 : (놀라며) 귀여운 고양이구나.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는다는데, 네가 재판을 해 줄 수 있니?

고양이 : 그 전에 내 소원을 들어줘

호랑이 : (마음에 안드는 말투로) 소원이 뭔데?! 대신 빨리 끝내야 해!

고양이 : (산을 보며) 나는 산 꼭대가 무서워서 가본 적이 없어. 같이 가줄 수 있어? 멀지 않아

나그네와 호랑이 : 알았어 (호랑이는 한숨을 쉰다.)

2nd page of Kim Sea - 3 Humility

셋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호랑이 : 잠시 쉬었다 가자! 어디까지 가야해?

고양이 : (나그네에게 속삭이며) 내가 절벽 쪽으로 가면 나그네님은 호랑이를
미세요.

나그네는 깜짝 놀랐다.

고양이 : 호랑이님, 저 꽃 좀 보세요! 저기가 산 정상이에요.

호랑이 : 어디?

셋은 곧 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고양이: 저기요!

호랑이 : (화내며) 어디! 어디있는데!

호랑이는 점점 목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고양이 : (속삭이며) 나그네님! 지금 이에요!

나그네는 호랑이를 힘껏 밀었습니다.

호랑이: 아아아악!!!!

호랑이는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나그네 : 고양이야 정말 고마워.

나그네는 고양이와 같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콩 한쪽도 나누어요_ 이야기 속 주인공에게 편
지쓰고, 나눔의 가치를 알리기
Park Seung U - 4 Humility

**‘콩 한쪽도 나누어요’ 이야기 속 등장인물을 한 명 골라 편지를 쓰고,
나의 나눔 단체를 상상하며 글쓰기**

To. 사과 가게 아주머니께

아주머니는 저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주셨어요. 아주머니는 나폴레옹한테 주말마다 작은 친절을 베풀었지만 나폴레옹한테는 그 작은 친절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아줌마가 사과를 외상으로 주어 나폴레옹이 다른 친구들처럼 당당하게 먹을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나눔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나눔 단체를 만든다면, ‘배불리 먹자’라는 단체를 만들어 가난한 사람, 장애인과 고아들에게 일주일 동안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나눌 것이다. 이런 나눔이 하고 싶은 이유는 나처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깨끗한 물을 못먹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세계엔 10 초마다 한 아이가 배고픔으로 죽는다고 한다. 사람들이 죽는 걸 막기 위해 나눔을 시작하고 싶다.

Nam Yun A - 5 Teamwork

장애인의 삶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야기 짓기

헬렌켈러처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주인공 시점에서

이야기 창작하기

나는 걸을 수 있었던 꿈같이 행복한 시간들을 생각하며 즐거운 상상을 했다. 하지만 또 다시 걸을 수 없다는 생각에 기쁨도 잠시, 다시 마음이 속상했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두 다리를 쳐다보고 걷기를 시도해봤다. 역시나 넘어졌다.

‘결심했다. 의족을 사용해서 다시 걸어보리라!’

의족을 사용해서 걷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넘어지고 넘어지고 또 넘어졌다. 가족들의 도움으로 매일 매일 빼먹지 않고 연습했다. 수도 없이 넘어졌지만 포기 하지 않고 연습했다. 100 일째 되던 날 드디어 혼자 일어나서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 동안에 용기를 준 나의 가족들에게 감사하다. 비록 등산을 갈 수 없겠지만, 의족을 사용해서 이만큼 걸을 수 있다는 것은 나에게 엄청난 기쁨이고 행복이다. 하루 하루를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고, 나보다 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려고 한다.

Yang Sewon - 6 Respect

두 개의 이름 이야기의 결말 이후의 상황을 상상하여 이야기 짓기

올레마운의 결말 이후 뒷 이야기를 상상하여 이어서 작성하기

[결코 쉽지 않은 길을 가겠지만 우리는 결국 돌아올 것이다. 나는 동생들이 그 지혜를 잘 지닐 수 있게, 집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잊지 않게 해 줄 작정이었다. 이제 나는 다시 올레마운 포키악이 되었다.]

[창작한 이야기]

학교에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7 시간, 아주 오래걸렸다. 무얼 할 지 모르겠고, 할 게 없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다 잠잠해졌고 주변을 보니 아이들은 다 잠들어 있었다. 동생들은 춥고 피곤한 지 내가 조금 움직이면 뒤척거리며 내 품을 더 꼭 안았다. 엄마가 손에 쥐어준 종이 쪽지는 손에 꼭 잡고 있었다.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간직하기 위해.

이제 울고있는 사람은 바로 나였다. 이번 학교 생활은 다를 것이다. 달라야 한다. 난 동생들이 학교에 처음 온 나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의지하고 힘을 줄 수 있는 건 서로 뿐이니까.



Inseong Kim - 7 Respect

피천득의 '인연' 리플렉션

피천득-인연 리플렉션

나는 이 작품을 처음 보았을 때 피천득이라는 작가의 안타까움이 많이 녹아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했다.작가 본인과 일본인 소녀 아사코와의 인연을 나타낸 이 <인연>이라는 수필은 아사코와 작가가 만나 갈수록 사이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아사코를 처음엔 아름다운 스위트피 꽃에 비유하다 또 목화 꽃으로, 그러다 마지막 만남에선 시들어가는 백합에 비유하는 것이 그 예이다. 그것 말고 또 인사하는 것에도 차이가 있는데 처음에는 목을 안고 볼에 입을 맞추지만 그다음 만남에서는 가벼운 악수, 또 마지막 만남에서는 가벼운 악수조차 해주지 않고 떠난다.

“그리워하는데도 한 번 만나고 못 만나게 되기도 하고, 일생을 못 잊으면서도 아니 만나고 살기도 한다.” 이 문장은 작가가 첫사랑이었던 아사코를 못 만나면서도 평생 잊지 못했다는 뜻이다. 내 생각에 이 문장은 이 <인연>이라는 수필의 요약과 함께 이 작가의 인생의 요약인 것 같다. 두번째 만남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만나지 못하는 동안 전쟁이 일어나 아사코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 그리워하고, 세 번째 만남 이후로 죽을 때 까지 만나지 못했지만 평생 동안 기억하며 인연 이라는 수필을 쓴 것 까지 모두 이 문장 하나에 요약이 된다. 이 문장이 내가 읽어본 수필 중 가장 좋았던 수필에서 가장 좋았던 문장이었던 이유다.

이 작품은 내가 읽었던 수필중 가장 몰입되는 작품이다.내가 작품을 읽었을때 바로 작가의 의도대로 작가 피천득의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느꼈다. 아사코와 멀리 떨어져있어 자주 만나지도 못함에 안타깝고, 결국 만났을 때도 달라져가는 아사코의 모습에 결국 이루어지지 못해 아쉬움을 느꼈다. 그리고 작가의 환경 탓과 달라져가는 아사코의 모습에 결국 이루어지지 못한 이 둘의 사랑이 너무 안타까웠다. 그리고 또 작가와 아사코와의 마지막 만남때 아사코와 결혼한 미국인 같지도 않고 일본인 같이 보이지도 않는 진주군 장교 남편을 작가가 볼 때 너무나 크게 안타까웠다. 이렇게 작가가 자신의 감정을 오직 글을 통해 깊게 느껴지게하는 것이 이 작품을 정한 이유이다.

Inseong Kim - 7 Respect

2nd Page

이 작품에서 작가는 책을 읽을 적당한 시기, 즉 인연을 놓쳤다. 작가는 이 <인연>이라는 수필을 써 자신이 느꼈던 감정과 놓친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을 다른 사람에게도 공유하고 싶었던것 같다. 작가는 중간 중간 다양한 표현을 써 그때마다 독자가 작가의 감정을 느끼고 이해하게 만드는데 이런 작가가 느낀 감정에 공감하고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인연>이라는 수필에 크게 공감하지 못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수필 <인연>에 대해서 그냥 평범한 짝사랑 이야기라는 주장이 존재한다.

처음 나는 이 이야기 속에 담긴 메세지가 별로 없고 내용도 그냥 쓰여 있는 대로 생각해서 이 <인연>이라는 작품에 별로 흥미가 없었다. 하지만 다시 깊게 파고들어 읽고 있을 때 이 작품에 담긴 작가의 감정을 정확하게 이해 할 수 있었다. 어린 유치원생을 가르치는 것처럼 쉬워 보이지만 막상 해보면 통솔하기 너무 힘든 것처럼 <인연>이라는 작품도 처음 보았을 때 수필 중 가장 쉬워 보이지만 막상 읽어보면 작가의 인연에 공감하기 힘들었다.

나중에 나는 이 작품이 생각날 때마다 읽어보고 누군가와 이 수필에 대해 토론해보고 싶다. 그럴 때마다 또 느끼는 점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처음 이 수필을 읽었을 때와 지금 느낀 것이 매우 다른 것 처럼 그럴 때마다 또 이 작품을 더욱 이해하고, 느끼고, 지금 보다 더 이 수필에 대해 알아 갈 것이 많을 것을 알기 때문이다.

Inseong Kim (김인성)
Grade 7 Korean

Yeunji Song - 8 Respect

황순원의 _소나기_로 만든 6컷 만화

소나기로 만드는 6컷 만화



Jein Oh - 9 Commitment

인물분석을 통한 작품의 의도 및 주제 확인 - 전광용의
'꺼삐딴 리'를 중심으로

인물 분석을 통한 작품의 의도 및 주제 확인

전광용의 <꺼삐딴 리>는 작품의 주인공인 이인국의 기회주의적인 행적을 보이면서 그의 행동에 비판을 한다. 이인국은 회중시계를 꺼내 보다가 과거를 회상한다. 그는 종합 병원을 운영하는 외과 전문을 운영하며 환자의 치료보다 환자의 경제적인 능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는 일제 강점기의 말기에 친일파로 득세한다. 광복 후에는 소련군에게 빌붙는 모습을 보여 위기를 모면한다. 월남한 후에는 미국인의 도움으로 사회 지도층 인사가 되고 미래에는 미국무성 초청으로 미국으로 건너갈 꿈에 부푼다.

주인공인 이인국은 일제 강점기부터 격동의 현대사를 살며 다양한 변모를 겪은 기회주의적인 인물이다. 이인국은 일제 강점기때 제국 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하고 집에서 일본어만 사용하는 친일 의학도였다. 그러면서 광복 후 소련군에게 의료 실력을 발휘하고 소련군의 환심을 사고 아들을 소련으로 유학을 보내고 친소파가 된다. 월남 후에는 배금주의적인 진료 행위를 하며 정치적인 친미파가 된다. 그리고 미래에는 미국 이민을 계획하고 미국 대사와 접촉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인국은 한 시대의 특징하게 기회주의자인 사람을 작품에서 대표하는 전형적인 인물이다. 그의 삶은 자신의 성격은 사회와의 관계를 통하여 만들어진다. 그 시대의 격동기를 거치면서 위기마다 모면하는것을 성공한다.

이인국은 일제 강점기 때에 일제에 적극 협조를 하며 부와 권력을 노린다. 광복후에는 친일 행적이 발각이 될까봐 초조해 하며 상황을 지켜본다. 소련군 주둔 시기 때에는 치안대에 끌려가 문초를 당하기도 했으나 자신에게 온 기회를 살려 처벌을 받지 않고 감옥에서 풀려났다. 그리고 소련군과 친분을 쌓아 아들을 소련에 유학을 보내고 소련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며 다시 부와 권력을 얻으려고 노력한다. 그러면서 6.25 전쟁때 아내와 딸을 데리고 같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온다.

일제 강점기가 끝난후에 이인국은 광복을 맞이한다. 이인국은 친일파를 타도하자는 사회의 말에 초조해하며 자신에게 별일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그 시대의 상황을 파악하고 이인국이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인국 박사는 이 며칠 동안 불안과 초조에 휘둘러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무엇인가 닥쳐올 사태를 오들오들 떨면서 대기하는 상태였다."는 자신이 저지를 행위 때문에 초조해한다. 광복을 맞이한 이인국은 자신이 짓값을 치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것이 보여진다.

광복 후에는 소련군이 들어오고 이인국은 자신의 행적에 초조해한다. "이 종잇장 하나만 해도 일본인과의 교제에 있어서 얼마나 떼떽한 구실을 할 수 있었던 것인가. 야릇한 미련 같은 것이 섬광처럼 머릿속을 스쳐갔다."는 이인국이 일본의 정책을 충실히 따르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 일제 강점기에서 적극적인 친일파로 살아왔음을 알수 있었음을 알수 있다. 어쩔수 없이 그것을 찢어 버리면서도 아까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해방 뒤 부득이 써 오는 제 나라 말이 오히려 의사 표현에 어색함을 느낄 만큼 그에게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는 이인국이 워낙 일본 말만을 써 왔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어를 사용하는것에 불편해하는 것을 보여준다.

Jein Oh - 9 Commitment

2nd page

전쟁후에 이인국이 브라운의 도움으로 미국행을 준비한다. 미국 대사관에 도착한 이인국은 브라운에게 화병을 선물하며 친분을 쌓는다. 그리고 사회의 상황이 바뀌는 것에 따라 대응을 한다. "얼마 전부터 개인 교수를 받고 있습니다."라며 말하는 이인국은 전쟁 이후 미국의 영향력이 커진 남한의 상황을 파악하며 미리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

작가는 처음에 이인국 박사의 월남후의 현재에서 전쟁 직후의 과거를 회상하고, 다시 현재로 돌아온다. 그러면서 작가는 3인칭 시점으로 형상화 시켜서 부정적인 인물에 대한 비판적인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이인국의 부정성과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이 작품에서 작가가 보여주고 싶은것은 그 사회적 분위기에 그런 상황이 있는거고 친일파가 있다, 소련군이 있고 그 후에는 미군이 나타난다. 그 시대가 얼마나 혼란스러운 시기인지 작품에서 나타내며 그때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이인국처럼 기회주의적이지는 않고 어떤 삶이 맞는지를 의식하려고 한다. 이것은 작가의 의도에서부터 나타난다. 작가는 <꺼삐딴 리>의 제목에서 영어 '캡틴'이라는 러시아어 '까삐딴'은 광복 후의 북한에서 '우두머리'거나 '최고'를 뜻하며 쓰였다. 이것으로 이 소설의 주인공인 이인국을 가리키는 단어로 이인국의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표현하는 제목임을 알 수 있다.

시대적 배경에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인물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꺼삐딴 리>의 이인국은 그 시대의 배경의 삶에 맞게 자신의 성격은 물론 사회와의 관계를 통해서도 형성된다. 그러면서 이인국은 기회주의적이면서도 민족의 안위보다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출세 지향적 성격과 한국 현대사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작가는 이런 사회적인 모순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를 등장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다.

Jein Oh (오제인)
Grade 9 Korean

Seunghyeon Lee - 10 Integrity

-작품의 사회 반영 -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를 통해

작품의 사회 반영 -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를 통해

20세기의 사람들이 상상하던 100년 후의 미래는 과연 어땠을까? 1932년에 쓰인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는 극도로 발달한 미래의 과학 세계를 배경으로 한 SF 소설이다. 소설 상의 시간은 A.F. 632년이고 1932년 바라본 600년 후의 미래는 이렇 그것이라는 헉슬리의 상상력을 보여준다.

멋진 신세계는 대전쟁 이후 과학 문명이 극도로 발달한 가상의 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멋진 신세계의 사회적 기반은 우리 사회의 것과 확연히 다르다. 이러한 차이점 중에는 현시대 인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도덕적으로 잘못된 부분도 많다. 그렇다고 해서 온통 이해가 되지 않거나 나쁜 요소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 멋진 신세계의 사회는 실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보완하려 시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에서 그려진 사회는 유토피아로 보이기보다는 이렇게 디스토피아로 그려질 수밖에 없지는 경우가 많다. 처음 책을 읽을 때는 최첨단 기술, 끝없는 쾌락, 그리고 전쟁이나 빈곤이 없는 낙원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잘 살펴보면 전에는 눈치채지 못했던 악몽 같은 세계가 드러난다.

멋진 신세계 속 사회가 디스토피아로 간주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문명인들에게 행해지는 극단적인 수준의 간섭이다. 문명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역할을 받아들이고, 세계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규칙에 순종하도록 몇 번이고 세뇌받는다. 세뇌는 다양한 역할을 한다. 세뇌를 통해 자신의 계층이 제일 우월하고 다른 계층을 제일 혐오하게 되지만 주어진 직업에 대해 미리 대비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끝없는 세뇌를 통해 세계정부는 문명인들 각자의 개성과 비판적 사고방식 또는 불만의 싹을 없앤다. 이로써 세계정부는 상황이 어떻든 눈앞에 놓인 처지에 절대 의심을 품지 않는 매우 순종적인 사회와 그 구성원들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국민의 비인간화이다. 사람들은 다섯 가지로 나뉜 여러 가지 사회 계급에 적합하도록 유전자를 조작당한다. 결과적으로 사회는 그 누구도 반기를 들 수 없는 체계적인 계급으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사회의 계급화는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을 선택할 자유를 금지하고 그들을 사회적으로 억압한다.

이것 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에게는 부정적인 감정을 억제하고 사회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약물 '소마'가 널리 사용된다. 이러한 이유로 작중에서의 문명인 그들은 의식하지 못하지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자유롭고 진정한 경험을 잃어버리는 것은 물론 점차 나아가 감정까지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 지속하는 부정적인 감정의 결핍은 개인이 자유롭게 감정을 경험하고 표현의 자유가 장려되는 유토피아 사회의 생각과는 완전히 대조적이다. 덧붙여서 이 사회는 사람들의 사상과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니 당연히 갈등은 존재하지 않겠지만 겉으로만 평화롭게 보일 뿐 결국에는 자유가 없는 디스토피아다. 모든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모든 갈등의 발미를 없애버린다.

Seunghyeon Lee - 10 Integrity

2nd page

문명사회는 존이 어릴 때부터 살았던 야만인 보호구역과는 크게 다르다. 그들은 쾌락을 중시하며 개인적인 욕망보다는 사회의 안정과 조화를 중시한다. 그 예시로 작중에서 묘사된 문명인들의 마약 소마에 대한 집착이 있다. 이것은 존의 어머니인 린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몇십 년 만에 문명사회에 돌아온 린다는 끝없이 소마를 과다복용하다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러는 와중에도 어린아이들의 교육에 필요한 표본이 되어버린 자신의 어머니 린다에 존은 문명사회에 점차 공감하지 못하기 시작하고 분노한다. 이러한 부분이 존이 문명사회에 환멸감을 느끼고 사람들에게 자유를 갈망하라며 문명사회와 대립하기 시작한 동기가 된다.

작중 맨 마지막 부분에서 존과 무스타파 몬드 총통과의 대화에서는 멋진 신세계의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둘의 대화 중 총리는 이 사회를 죽어버린 사회라고 칭한다. 사회는 살아있는 것들의 집합이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해 나가는 것이다. 하지만 죽어버린 사회는 그 모든 것을 억지로 중지시켜버려 퇴보도 진보도 할 수 없는 사회인 것이다. 수천 년이 지나도 이 죽어버린 사회에서 지내는 삶의 방식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 수천 년 사이에 존과 같은 인물이 여럿 나올 수 있지만, 그것은 아무런 가치도 지니지 못한다.

작중의 미래세계는 얼핏 보면 괜찮은 세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사람으로서의 인권은 보장해주며 모든 사람이 자신은 행복하다고 믿고 있으니 말이다. 오히려 거듭되는 경쟁, 수많은 갈등, 한정된 자원 등 현 사회에 불만을 느끼고 있는 현대인들의 눈에서는 갈등과 경쟁이 없는 사회, 영원한 젊음, 부작용 없는 환각제 등 신세계의 모습이 오히려 더 나아 보일 수 있다는, 현대사회가 가진 문제들에 대한 역설적 제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Seunghyeon Lee (이승현)
Grade 10 Korean

Gunmin Ro - 11 Respect

디아스포라에 대한 이해

디아스포라에 대한 이해

김 투이의 소설 "루"와 서경식의 책 "디아스포라 기행" 그리고 무한도전 '우토로 마을' 편은 모두 디아스포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다양한 관점에서 디아스포라 경험을 다루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란, 특정 국가나 지역을 벗어나 타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들이나 그들의 후손들과 같은 조국을 떠나 타국에 흩어진 사람들을 일컫는 용어라고 볼 수 있으며, 우리가 디아스포라를 다루는데 있어서 정체성을 중요하게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작품들을 관련하여, 디아스포라 관련한 주제들을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해체와 파괴

디아스포라 경험은 종종 가족과의 이별과 파탄에서 비롯되어, 영원히 가족과 이별하거나 가족 자체가 파괴되는 형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조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이주하거나 강제 이동할 때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이동하지 못하거나 이동 후에 가족이 분리되는 경우가 많고, 가족의 죽음이나 부모의 죽음으로 인한 고아가 발생하는 등의 가족 파괴 현상이 아무렇지도 않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디아스포라가 생겨난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제 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강제노동을 시켜서 가족들과 떨어트려 일본에 갔다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던 우리 민족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망명과 강제 이동

특정 역사적 사건이나 상황으로 인해 조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망명하거나, 전쟁이나 강제 이동으로 인해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디아스포라가 발생한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이주는 개인의 자유의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시대적 상황이나 조국의 상황으로 인한 강제 이동에 해당하므로, 종종 개인적, 정서적으로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며, 디아스포라가 가진 이방인으로서의 성격과 정체성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쟁의 영향

디아스포라는 전쟁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가족이 흩어지고, 조국은 폐허가 되며 사람들은 떠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아닌 상처와 비극만 남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서 절대적으로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 전쟁이며, 그것이 가져오는 비극적인 결과와 영향들에 대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후의 본국 복귀

디아스포라에서 다른 나라로 떠나거나 망명한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디아스포라에서의 경험과 본국의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아스포라는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이 여건에 맞지 않거나, 본국 자체가 변화한 경우 타국 땅에 머무르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일제강점기의 한반도 상황과 전쟁 후 분단이 된 한반도의 상황은 매우 다르고, 국가의 이름부터 다른 점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들은 디아스포라 경험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나타내며, 문학, 음악, 영화, 다큐멘터리 등을 통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작품들은 사람들에게 이주, 정체성, 가족, 전쟁 등에 대해 생각하고 공감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역사적 비극으로 인한 디아스포라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